생존과 지계 사이, 불교의 정향은?



사찰경영 – 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된다

조기룡 지음/ 올리브그린 펴냄/ 2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국불교는 사찰경영에 대한 고민이 깊다. '사찰경영' 은 무소유의 수행처인 '사찰' 과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 의 합성어로 그 의미상 조화를 이루기 힘든 측면이 있다.

〈사찰경영-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된다〉는 지계와 생존의 기로에 선 한국불교의 담론을 담고 있다. 담론이란 한국불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인 정향에 대한 것으로, '지금 한국불교가 깨쳐야 할 화두' 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한국 사찰들이 경영에 대해 고민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한국 불자들이 남방불교의 불자들에 비해 사찰일에 피동적이고, 승가에 대한 보시도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한국사찰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찰경영의 초점이 이윤 창출에 맞추어져 있고, 그 주체는 스님들이 되어있다. 달리 표현하면 스님들이 직접 이윤 창출을 위한 수익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의 생존을 위한 승가의 몸부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하는 한, 현실에서의 생존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욕망을 여의여야 하는 승가마저도 이윤 창출에 몰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실천이 여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숙제다.

책은 이와 같은 생존과 지계 사이에서 우리 불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인 정향을 탐구한다.

사찰경영의 분야를 재화, 인사, 포교, 스님, 사찰, 종단 등의 여섯 가지로 구성하고, 그 경영 방법을 불법(佛法)에서 찾고 있다.

제1장 '재화의 법, 정재' 에서는 사찰의 재화를 정재로 인식하고 삼보를 위해 사용해야함을 논한다. 아울러 정재에 합당하는 모금방식을 강구한다.

제2장 '인사의 법, 인재양성' 에서는 사찰경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님과 재가종무원 그리고 신도 관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찰경영, 여법성 초점 · 방안
정재에 합당한 모금방식 강구
경영 위한 전문인력 양성해야
사찰 성장위한 여러 방법 제시

제3장 '포교의 법, 중생교화' 에서는 포교는 부처님의 전도부촉을 실천하는 행위이기에 교세확장이 아닌 중생고의 해소가 그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지역포교, 어린이 포교, 신도시 포교에 대한 방안도 도출했다.

제4장 '스님의 법, 수행' 에서는 스님의 본분은 수익창출이 아닌 수행정진임을 내세웠다. 또한 장로 비구의 덕목과 스님의 하심을 살펴본다.

제5장 '사찰의 법, 여법' 에서는 사찰의 성장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사찰이 여법하게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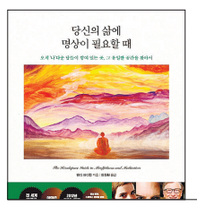
'사찰경영' 은 한국불교의 화두라고도 할 수 있다. 사진은 모 사찰의 불전함. 현대불교자료사진

제6장 '종단의 법, 공동체' 에서는 불교종단 내부적으로 승가가 화합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탐구한다. 나아가 불교종단 외부적으로 사회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사회복지의 실천 측면에서 모색한다.

책은 이윤 창출에만 몰두하지 않고 불법(佛法) 실현의 관점에서 사찰경영을 고심하고 있다. 기존의 사찰경영서적들은 이윤 창출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책은 사찰경영의 여법성에 초점을 두고 방안을 제시한다. 즉 불법에 어긋남이 없으면서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사찰경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와 사찰의 지계와 생존을 아우르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사찰의 존속마저 위급한 실정을 우선 걱정하고 있는 스님이나 불자 중에는 이 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사찰경영을 전공으로 선택한 초기에는 사찰의 이윤 창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들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사찰의 수익창출이 한결같이 수익사업으로 귀결되는 현실 속에서 사찰경영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종교조직인 사찰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 사업에 몰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뒤늦게 들었다. 이후부터 사찰경영의 법을 사회의 경영기법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고 있다." 고 했다.

저자 조기룡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와 동(同)대학원 행정학과 석사와 박사를 졸업했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찰경영과 종무행정' 을 전공하고 있다. 근래에는 이를 심화하여 '불교리더십' 과 '전법교화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관련하여 〈불교리더십과 사찰운영〉, 〈종무행정론〉 등 여러 저서와 〈사찰경영의 성공적 사례와 불교교단적 함의〉 등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앤디 퍼디컴의 쉽고 정확하게 명상하기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

앤디 퍼디컴 지음/ 안진환 옮김
스노우폭스북스 펴냄/ 1만6천5백원

쉽고 정확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앤디 퍼디컴의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이다.

인류에게 '삶의 최고 가치' 란 무엇일까. 결코 쉽지 않은 질문과 답이다. 삶의 가치를 물질적 만족이 아닌 심적인 만족에 둔다면 그 답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마음은 설명할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마음은 삶의 시작인 것이다.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의 평온을 찾는 법이나 밤에 숙면을 취하는 법,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법, 덜 걱정하고 덜 슬퍼하며 덜 분노하는 법을 배우려는 의지, 욕망을 자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느낌 등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명상이라면 진지하게 명상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책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저자 자신이 승려가 되고 명상을 수련하면서 터득한 가장 쉽고 정확하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몸은 쉴 수 있어도 마음은 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버스 의자에 편히 앉아 창밖을 내다볼 때에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바쁘다.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이나 상상, 몇 분 혹은 몇 시간 후에 필요한 것 등 갖가지 생각들로 가득하다. 대부분의 대중은 이런 생각의 홍수에 빠져 산다.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면 정말 중요한 가치, 즉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낸 결정들의 옳고 그름', '나다운 삶' 등을 결코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인생의 가치들은 눈이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0개국 출간, 10가지 명상 노하우
빌 게이츠, 엠마 왓슨 등으로 주목

책은 10가지 명상법을 소개한다. 명상앱을 개발해 활발한 구루(guru)로 활동 중인 저자는 책을 통해 독자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때를 기억하는가?"라고. 그 질문은 우리 대부분이 하루 중 단 10분도 생각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위에서 언급한 것들의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소란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명상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0개 나라에서 출간된 책은 빌 게이츠와 엠마 왓슨으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답, 오직 나만의 길을 직시하고 싶어 했고 명상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빌 게이츠는 "내가 읽은 최고의 책 중 한 권"이라고 소개하며 누구든 내면의 '나' 에게 더 집중할 것을 권했다. '가디언' 은 "복잡하지 않은 삶, 명료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소개했다.

저자 앤디 퍼디컴은 명상과 마음챙김 전문가로 탁월한 강연가이자 작가로서 헤드스페이스(Headspace)에 관한 모든 것을 대변한다. 20대 초반, 대학에서 스포츠과학을 전공하던 중 히말라야에서 명상 공부를 시작했다. 10여 년 동안 세상을 돌아본 후 티베트에서 출가했다. 그리고 2004년에 환속했다. 이후 런던으로 돌아와 예술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헤드스페이스로 완성되는 개념의 초안을 마련했다. 주요 저서로 〈마음챙김 식생활에 대한 헤드스페이스 가이드〉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창립

(사)한국불교종단 총연합회
교정 복지 교화단

설립목적 (1)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합리적인 교정활동
(2) 변화하는 시대에 맞도록 상호 공감하는 적극적인 교정복지 추구

동참발원 삼보에 귀의하옵고 전국 54개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 시설내 교화 및 전법 활동에 뜻을 갖고 계신 불법 문중 출가 수행자 분들의 동참을 권선 합니다. 〈종단 불문 회원 모집 합니다〉

교화단 주소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로 3 제천 관음정사(043-645-3272)

교 화 단 장 제천 관 음 정 사 수행자 탄석
교화부단장 원주 백 련 사 수행자 혜국
원주 대흥포교당 수행자 법안

※ 창립법회는 코로나19가 소멸된 후에 봉행할 예정입니다.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